

“불·유·도 철학사상 기초로 정보화시대 가치 창출”

동국대·북경대 주최 ‘한·중 전통문화’ 세미나

유·불·도 철학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사상은 첨단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사상인가, 아니다.

유·불·도 사상은 ‘정체적(整體的) 우주관’으로, 인간정신을 주체로 하는 사물·동물·기타 생물의 체계적 조화를 통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전망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중국 북경대(부총장 林鈞敬)가 공동주최해 22~23일 동국대 90주년 학술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보화시대의 한·중 전통문화·유·불·도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중 석학들은 불교·유교·도교의 전통사상이 정보화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그 사회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정보화 시대의 한·중 전통문화’를 주제로 기초강연에 나선 송석구 총장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동양적 세계관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움직임은 동양의 비선형적(非先形的) 시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 인간에 대한 강조와 도덕 강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의 전통문화는 불교의 보편, 유교의 절제, 도교의 무한(無限) 사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신과 인간, 다른 동·식물과 무생물까지도 근원적으로는 인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조화로운 세계, 즉 정체적 우주관을 형성한다는 것.

‘한국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정의와 불교윤리’에서 권기중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삼취정제(三聚淨戒)’를 불교의 경제윤리로 제시

했다. 권교수는 “경제활동은 단순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배경과 함께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써 불교가 직접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정의가 무엇인가

“불·유·도교 유기적 결합은 정체적 우주관”

사원불교-거사불교 결합할때 생명력 배가

라는 측면에서는 불교적 윤리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 권교수가 불교 경제윤리로 제시한 ‘삼취정제’는 △선율의계(攝律儀戒) △선신법계(攝善法戒) △선중생계(攝眾生戒)로, 법규를 어기지 않고 모든 행위가 선의 입장에 서며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다.



◇22~23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권교수는 “삼취정제에 바탕한 불교 윤리적 시각은 한국자본주의의 경제를 한층 성숙시켜 경제정의 정착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근대 불교의 새로운 사조로

이러 위교수는 ‘인간불교’의 특징에 대해 △인간본질에 대한 긍정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긍정 △중생의 이익과 사회개선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 △종교의 초월 △승속(僧俗)의 결합이라고 밝혔다. 위교수는 “산림사원(山林寺院)의 범위를 넘어 사원불교와 거사불교가 서로 결합했을 때, 불교는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현대화(吳同瑞·북경대) △한국자본주의와 한국의 도교문화(김해배·동국대) 등 6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nia.com)

“남 먼저 건지는 정토신행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상”

정토학회 제1회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는 25일 동국대 소강당에서 정토신행의 교리적 근거 마련과 새로운 불교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현대사회와 정토신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기초강연에 나선 정태혁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현대사회의 종교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보편적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며 “나보다 남을 먼저 건지겠다는 대승불교의 극치에 있는 정토교는 현대가 요구하는 종교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사회에 사는 불교도는 자타(自他)의 동시구제를 위해 멀고 먼 서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만일열불결사의 성립과 그 역할’에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만일열불결사는 우리나라 특유의 일수열불 형태이며, 현대에도 살아서 실천되는 정토신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종교운동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장 종교적이며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전개될 수 있는 신형 형태의 하나로서 만일열불결사운동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열불결사운동의 역할에 대해 종교적·경제적·사회적 역할 등을 제시했다.

홍윤식 교수(동국대 역사교육)는 “정토예술행에서 정토교가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한 불교예술의 창출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정토경전의 내용과 아름다운 묘사법 △정신적 이상세계인 극락세계를 현실세계로 묘사 △구칭(口稱)·관상(觀想) 등 염불 수행법의 음악적·미술적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대승불교가 표방하는 불국토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정토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토사상의 현대적 의미’ (강동균·동아대) 등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일제하 보성고보 운영권 포기는 교육불사의 중요성 망각한 일”

김광식씨 주장

일제하 불교계에서 운영한 대표적 고등보통학교인 보성고등보통학교의 경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계의 학교 경영의 문제점과 교육불사의 교훈을 도출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는 최근 발행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집에서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普成高普) 경

대두된 ‘인간불교’에 대해 발제에 나선 위상해 교수(魏常海·북경대 철학과)는 ‘인간불교의 정의(略議人間佛教)’에서 “인간불교는 뚜렷한 입세(入世)의 색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인간생활·사회현실과 결부시켜 발전해온 중국 불교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영’을 통해 “대표적 불교 교육기관이었던 보성고보 경영권이 본산간와 마찰과 분권적 요소에 의해 고계학원(高啓學院)으로 인계된 것에서 불교계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고한 교훈을 도출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는 최근 발행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집에서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普成高普) 경

국제소식

수난격는 방콕의 사찰

태국의 수도 방콕시내 사찰에 불탄 불상과 불단이 수모를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추완 리크파이 수상을 비판하는 문구가 불단 뒷면에 적혀있어, 이 사찰의 불상과 불단을 치우도록 명령했다는 것.

방콕 시민들은 “사찰 불단에 리크파이 수상의 비방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신홍종교를 추종하는 사찰로 선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상과 불단을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 방산석경 영구 보존

중국 정부는 수나라때부터 조성된 방산의 석경을 원래의 자리인 석경굴에 영구 보존키로 결정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나라 이후 사대왕조 천여년에 걸쳐 조성된 방산석경이 환경오염으로 훼손이 심각해 원래의 자리인 방산석경굴에 영구 보존키로 결정했다는 것.

지난 1956년 중국정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된 방산석경은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경관이 마모되는 등 피해가 심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 평화기원 거리법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타일 자유호랑이는 회담장에 나와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중심가를 가득 메운 황색가사의 스님 5백여명이 21일 ‘평화 기원’ 거리법회를 진행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평화기원’ 법회와 캠페인은 최근 콜롬보 근교에서 잇달아 발생한 타일자유호랑이의 테러를 규탄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리랑카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테러방지종교연맹’에서 마련했다.

오종욱 기자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인터넷. 이곳에서 우수한 불교 정보를 선별해 볼 수는 없을까. 빌 윌슨(43·미국)이 개설한 달마링 사이트를 방문. 포인터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달마링 사이트는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 사이트 중에서 불자 네티즌들의 이용 빈도를 격월·격주간별로 분석해 우수한 불교 사이트를 색인·정리하고 있다. 달마링에서 제공하는 불교 사이트 수는 총 213개. 이중 ‘빌의 불교 페이지(Bill's Buddhist Page)’에는 불자 네티즌들이 격주간 283회, 격월간 576회 방문해 이용 빈도 가장 많고, ‘문(門)없는 문-선센터(The Gateless Gate Zen Center)’는 두 달 동안 5회 정도 방문을 받아 이용 빈도가 가장 낮다. 물론 달마링 사이트의 분석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달마링

우수불교사이트 검색 색인정리 美서 나온 한국스님들 책 정보도

불교 사이트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달마링은 불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의 요청을 받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포섹(Infoseek) 나 야후(yahoo)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불교 사이트는 3만 여개를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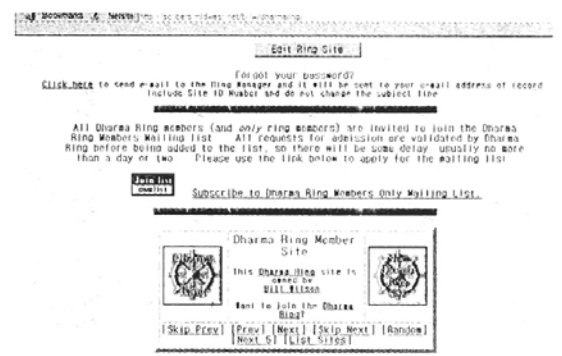
인터넷에는 각 사이트의 특성과 정보를 분석하고 네티즌의 이용 빈도를 조사하는 사이트가 몇 개 있다. 링(Ring) 사이트는 이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다. 달마링은 바로 링 사이트 업무에서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달마링이 제공하는 사이트 분석 자료는 충분한 신

출된 한국계 스님들의 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뉴질랜드라는 작은 섬 나라에서 개설한 ‘보디아나라마 넷’도 눈길을 잡는다. 1979년 아잔 소 메도스님이 뉴질랜드 전역을 돌며 포교한 이후 불교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따라서 이 곳의 불교계는 계를 사상이 투철한 남방계 수행을 따르고 있으며, 수행에 전심을 쏟는 승가와 이를 지원하는 재가들이 뉴질랜드 불교계를 지탱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개관 △사찰 소개 △아잔 스메도 법어 모음 △뉴스레터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달마링 <http://scribers.midwest.net/billw/dharmaring/>
시프러스 나무 선원 <http://gamet.acns.fsu.edu/~kap1877zen.html/cypress.html>
보디아나라마 <http://yourname.co.nz/www/bz/bodhine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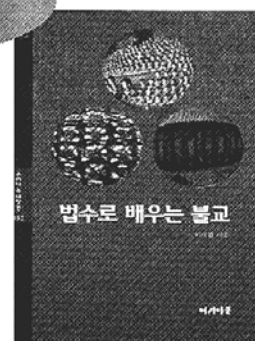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껏 지음●
86 변형 196쪽/값 4800원
여시아문 펴냄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강(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迴), 육파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번(七辯), 칠불동계(七佛通戒隔),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형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세(壽), 53선지식(普智識), 32감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법수로 배우는 불교